

내일 개막 스무살 '광양 매화축제' 달라진다

청춘 콘서트·매실 쿠키쇼·매화 한복 패션쇼 등 볼거리 다채
편의시설 늘리고 직거래 장터 운영 농·특산물 대대적 홍보

스무살 '광양 매화축제'가 변신을 시도했다. 청춘들을 위한 콘서트를 준비하는가 하면 지역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 농가소득 증대의 장을 마련한다.

15일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20회째를 맞는 '2018 광양 매화축제'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광양 매화축제는 섬진강을 따라 백운산 자락으로 펼쳐진 매화 군락지가 봄내는 장관으로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청춘&희망 콘서트' 등 젊고 건강한 행사로 상춘객 맞이=이번 축제에서는 매화가 수놓아진 한복을 입고 펼쳐지는 패션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셰프와 함께하는 매실 쿠키쇼를 비롯해 매화를 체험하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둔치주차장에서부터 행사장까지 이동하는 곳곳에서 거리 퍼포먼스와 함께 펼쳐진다. 또 시립예술단의 축하공연과 지역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이 상춘객을 맞이한다.

특히 올해는 축제 20회를 맞아 스무살이 된 청춘들을 위한 '청춘도 봄도 활짝 피는 청춘&희망 콘서트'와 '매실명인 홍상리의 건강법상 토크콘서트'가 열려 광양 매실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양 매실음식 전시'와 변미자 셰프와 함께하는 '매실쿠키콘서트'를 개최한다. 광양매화축제위원회와 광양시우리음식연구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매실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여 광양 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고, 매실의 대중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 매실음식전시는 다양한 광양매실 음식과 매실수를 이용한 체험광명 상품인

'웰니스팜 광양스토리'를 전시해 매실음식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린다.

18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한식대첩 4' 최종우수자인 셰프를 초청 '셰프와 함께하는 매실쿠키콘서트'를 개최해 영호남 음식문화가 서로 융합되는 장을 마련한다.

시는 축제장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주차난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둔치주차장 일부를 대형버스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둔치주차장~매화마을 삼거리 구간을 순환버스 전용구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 축제기간 중 불법노점상 근절과 화장실 추가 설치와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질서 있는 축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준비할 방침이다.

◇우수 농·특산물 싸게파는 직거래장터로 농가 소득 증대=축제기간 지역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도 운영한다.

광양시와 광양매화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시와 자매도시인 파주시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해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농가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13개 업체와 자매도시인 파주시가 참가한 가운데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시에서는 매실가공제품을 비롯한 표고버섯과 한과, 감말랭이, 건나물류, 매실과 꽃감을 이용한 빵류, 참승이버섯 등을 판매하며 파주시는 농촌지도자회에서 화훼와 농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지역의 고품질 농·특산물 저렴하게 공급해 지역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광양시 매화마을에 매화꽃이 만발하면 관광객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올해 매화축제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매화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그동안 축제를 추진해온 노하우를 바

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매화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양=김대성기자 kds@kwangju.co.kr



포스코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이 14일 김학동(오른쪽 줄 앞) 광양제철소장 앞에서 안전다짐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포스코패밀리 합동 안전다짐 결의대회

광양제철, 고용부와 함께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학동)가 14일 안전하고 건강한 제철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포스코패밀리 합동 안전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모든 사업장의 무재해 실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제철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여수고용노동지청장과 산재예방지도과장,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장, 광양제철소장 및 공장장 등을 포함한 총 172명의 정부 부처 관계자와 포스코패밀리 임직원이 참석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다짐 결의대회는 안전영상 시청과 제철소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광양제철소의 작년 안전활동을 되짚어보고 올해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 광양제철소와 계열사, 외주파트너사, 건설사 대표가 안전다짐 결의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양제철소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작업장 구현을 위해 100%표준준수 및 작업 전 'TBM' 실행을 거듭 강조해왔다. TBM(Tool Box Meeting)은 현장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 요인을 작업 전에 참여 작업자들이 함께 찾아내고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광양제철소는 올해 안전활동을 양적·질적 방면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100% 표준준수를 작업 문화로 정착시키고 이를 외주사 및 일용직들까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원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에 참여한 김학동 제철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포스코패밀리 합동 안전다짐 결의대회는 우리의 안전문화를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부터 완전히 탈바꿈하고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00년 가는 초일류 기업 포스코가 되기 위해 100% 실행력을 발휘해 안전부터 글로벌 TOP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성기자 kds@

백계산 동백 특화림 조성 오늘 첫 나무심기 행사

30억 투자 3년간 150ha 육성

광양시 백계산 육용사지 동백 숲이 국내 최대 동백 군락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광양시는 16일 오후 육용면 추산리 백계산 동백 숲 일원에서 '백계산 동백 특화림 조성'을 위한 올해 첫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백계산 동백 특화림 조성의 첫걸음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산림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학생,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1ha 면적에 동백나무 400 본을 식재하고, 육용사지 동백

숲 투어와 함께 현장에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천년의 숨결이 느껴지는 '육용사지 동백나무 숲'은 선국사 도선이 35년간 머물면서 절터의 기운을 보완하기 위해 식재된 동백나무 7000여 본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에 천연기념물 제489호로 지정됐다.

시는 이번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육용사지 동백 숲을 중심으로 백계산 일원에 2020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해 매년 50ha씩 3개년에 걸쳐 150ha의 국내 최대 동백 군락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김대성기자 kds@

광양시 대규모 체육행사 잇따라 유치...지역경제 활력

국도·볼링·태권도·축구대회 등 다음달까지 개최

스포츠타운인 광양시가 봄을 맞아 메이저급 체육 행사를 연이어 개최해 생활체육과 지역실물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우선 지난 10일 광양시체육회가 봄을 맞아 마로정에서 '제13회 광양시장기공도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어 '제37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 종별 선수권대회'가 지난 14일 시작돼 오는 30일까지 17일간에 걸쳐 1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4개 볼링장에서 펼쳐진다.

또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광양실내체육관에서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가운데 '제12회 전국 한국실업태권도연맹 회장기 대회'가 개최된다.

이와 함께 17일부터 18일까지 광양만직장인축구대회와 도지사배 전국아마바둑대회가 잇따라 열리게 된다.

다가오는 4월에는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와 '백운산기 전국배구대회', '광양시장기 전국 테니스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광양시체육회는 잘 갖춰진 스포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젊은 스포츠 도시 광양'이라는 이미지에 걸맞은 대회를 적극

유치해 시민에게 볼거리를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 나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 우리시를 방문한 선수와 가족들이 하루라도 더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매화축제와 광양볼고기 등 먹거리를 볼거리를 적극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에는 47개 종목단체에 1만 8000여명이 동호인으로 등록해 시 전역에서 활동하면서 시 체육의 발전과 건강 도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광양=김대성기자 kds@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